

유로존 역내 불균형에 대한 최근 동향 및 평가: 유동성 불균형을 중심으로

김준엽 국제경제실 유럽팀 연구원 (junyupkim@kiep.go.kr, Tel: 3460-1064)

차 례 ●●●

1. 최근 유로존 역내 불균형에 대한 평가
2. 유로존 역내 불균형 관련 리스크 분석: 유동성 불균형을 중심으로
3. 향후 전망 및 평가

주요 내용 ●●●

- ▶ 유럽 재정위기국의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201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유로존 역내 불균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으나, 자본 및 신용 흐름상의 유동성 불균형은 계속되는 모습을 보임.
 - 유로존 재정위기국은 단위노동비용의 지속적 하락 등 내적절하과정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폭을 줄여나가고 있음.
 - 그러나 순대외투자포지션 및 민간부문의 신용흐름은 여전히 회원국간 불균형 상태가 유지 또는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 유로존 실시간 지급결제 시스템인 TARGET2 자료를 비롯하여 화폐유통 추이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상황을 통해 유로존 역내 유동성 불균형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음.
 - TARGET2 시스템은 유로화의 원활한 역내 순환을 위해 ECB와 유로존 17개 중앙은행이 구축한 실시간 결제시스템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동 시스템상의 채권과 채무 사이에 급격한 불균형 상태가 나타남.
 - TARGET2 수지 불균형을 비롯하여 M2 증가율, 순저축률, 채권발행 및 해외은행 차입 증감액 추이는 역내 자본 유동성의 불균형 상황을 대변해 준다고 할 수 있음.
- ▶ 재정위기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통해 역내 불균형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유로존 자본 유동성 불균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유로존 역내 유동성 불균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국에 대한 ECB의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경우, 역내 유로화 흐름 전체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유로화 시스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상존함.
 - 유로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지 않는 이상 자본 유동성 차원의 불균형 상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단기적인 대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개편 및 무역다변화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1. 최근 유로존 역내 불균형에 대한 평가

■ 유럽 재정위기국¹⁾의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2010년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유로존 역내 불균형 완화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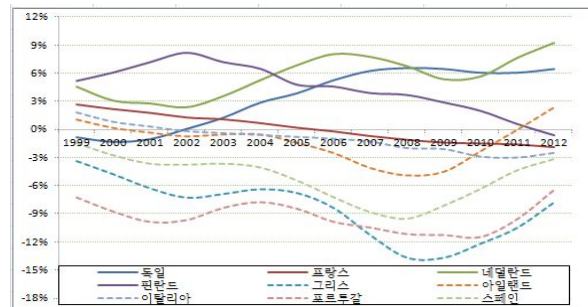
- 2010년부터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든 가운데 아일랜드는 2010년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12년 약 5%의 흑자를 기록함.

표 1. 유럽 재정위기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07	'08	'09	'10	'11	'12
그리스	-14.6	-14.9	-11.2	-10.1	-9.9	-3.4
아일랜드	-5.3	-5.6	-2.3	1.2	1.1	4.9
이탈리아	-1.3	-2.9	-2.0	-3.5	-3.1	-0.6
포르투갈	-10.1	-12.6	-10.9	-10.6	-7.0	-1.5
스페인	-10.0	-9.6	-4.8	-4.5	-3.7	-1.1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1. 유로존 주요국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주: 3년 평균 자료임.
자료: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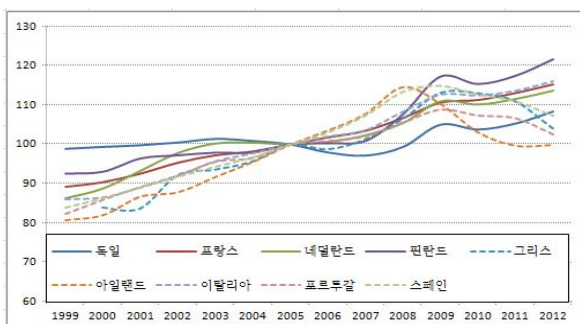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의 단위노동비용 역시 2009년을 기점으로 하락하면서 2005년 수준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임.

○ 이탈리아를 제외한 재정위기국의 2012년 단위노동비용지표는 110 이하를 기록하여 2005년 기준인 100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임.

※ 2012년 단위노동비용지표(2005=100): 그리스(104.1), 아일랜드(99.9), 이탈리아(116), 포르투갈(102.6), 스페인(1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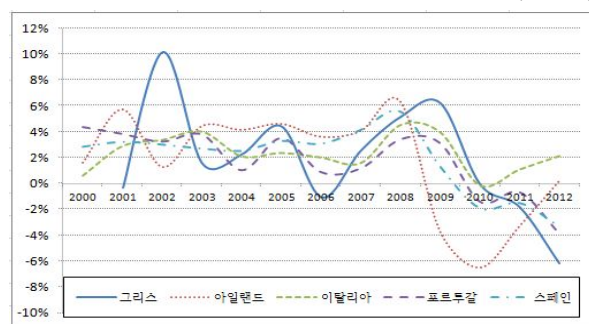
○ 단위노동비용의 지속적 하락은 임금인하 및 구조조정 등을 통한 재정위기국의 내적절하(Internal Devaluation) 과정의 일환으로서, 유로존 역내 불균형 완화의 주요한 신호로 인식되고 있음.

그림 2. 유로존 주요국의 단위노동비용(2005=100)



자료: Eurostat.

그림 3. GIIPS 국가들의 단위노동비용 증가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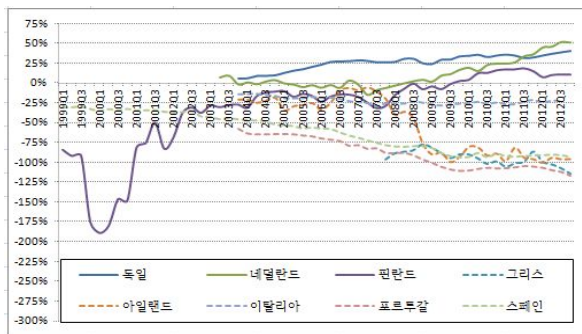
주: 전년대비(계절조정) 자료임.
자료: Eurostat.

1) 본고에서 유로존 재정위기국은 그리스(Greece), 아일랜드(Ireland), 이탈리아(Italy), 포르투갈(Portugal), 스페인(Spain)을 의미하며, '재정위기국' 또는 'GIIPS'로 표현하고자 함.

■ 경상수지 및 단위노동비용 개선에 따른 유로존 역내 불균형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동성 불균형은 계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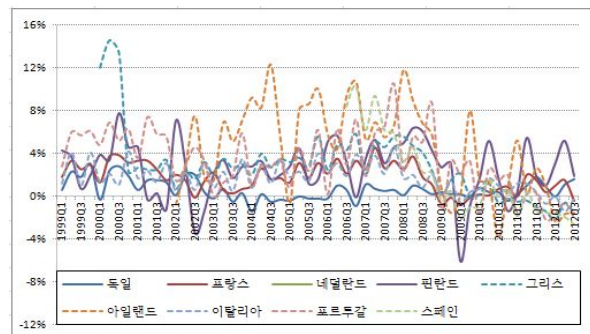
- 재정위기국의 GDP 대비 순대외투자포지션(NIIP: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추이는 (재정위기 국에 대한) 유로존 역내 자본시장의 불균형 상황을 간접적으로 나타냄.
 - NIIP는 한 국가의 대외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나타내는데, 유로존 출범 이후 재정위기국은 대외채무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반면,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등은 대외채권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위기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이 감소 하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양상이 유지됨.
-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국 민간부문에 대한 신용흐름은 악화되는 추세임.

그림 4. 유로존 주요국의 GDP 대비 순대외투자포지션 (단위: %)



자료: Eurostat.

그림 5. 유로존 주요국의 GDP 대비 민간부문 신용흐름 (단위: %)



- 주: 1) 기간별로 각 국가의 비금융권 기업 및 가계, 그리고 비영리 기관의 신용공급 규모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해당 기간에 발생한 GDP 대비 순채무(Net Liabilities) 비중으로 마이너스가 기록된 점은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등으로 민간부문에 자금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함을 의미함.

자료: Eurostat.

2. 유로존 역내 불균형 관련 리스크 분석: 유동성 불균형을 중심으로

■ 유로존 역내 유동성 불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실시간 총액 결제시스템(TARGET2)’²⁾을 들 수 있음.³⁾

- TARGET2 시스템은 유로존 내 자금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유럽중앙은행(ECB: European Central Bank)과 유로존 17개 중앙은행이 구축한 실시간 결제시스템임.
 - 유로존에서 발생하는 국가간 지급결제와 관련한 대부분의 거래(교역대금, 증권거래, 자금이체 등)는 TARGET2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짐.
 - TARGET2 시스템은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개별적으로 기(既)구축한 실시간 결제시스템을 단순히 연결했던 기존

2)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System의 약자임.

3) 홍경식(2012), 「유로지역 위기와 TARGET2 불균형 논쟁」, 한국은행; Cecchetti, Stephen G, R. N. McCauley, and P. M. McGuire(2012), “Interpreting TARGET2 Balances,” BIS Working Paper 393 등을 참고.

의 TARGET 시스템과 달리 ECB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일 실시간 결제시스템으로 2007년 11월부터 운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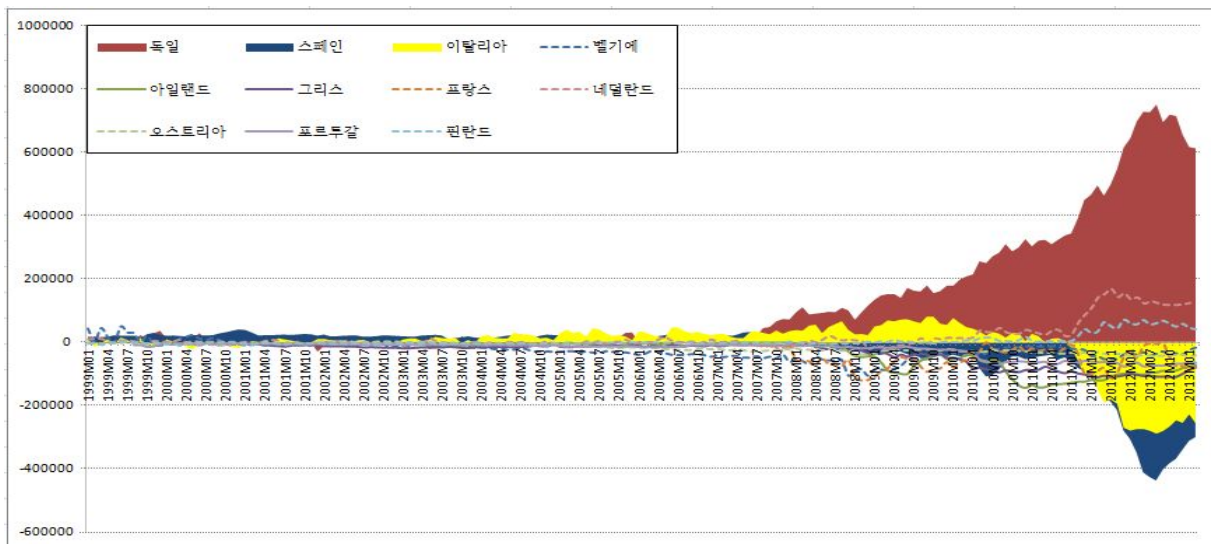
- 2012년 12월 말 기준 동 시스템에 999개 금융기관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금융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기관수는 3,386개이며, 일 평균(2012년 기준) 35만 4,185건의 결제가 2.477조 유로 규모로 이루어짐.
- 국가간 지급결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실제적인 화폐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ECB에 대한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채권·채무, 즉 TARGET2상의 채권 및 채무 조정을 통해 결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함.⁴⁾
- 동 시스템하에서 채무국 중앙은행은 유로존 기준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ECB에 제공하고, ECB는 이를 TARGET2 채권국에 지급함.

■ 유럽 주요국의 TARGET2 수지 추이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불균형 상태가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임.

- 독일은 TARGET2 최대 채권국으로서, 재정위기국 중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TARGET2 최대 채무국으로서 자리하는 양상임.
- 2013년 2월 잔액 기준 독일의 TARGET2 채권은 6,126억 유로이며,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각각 2,971억 유로와 2,564억 유로 채무를 기록, 합계 5,535억 유로의 TARGET2 채무를 보유함.

그림 6. 유럽 주요국의 TARGET2 잔액추이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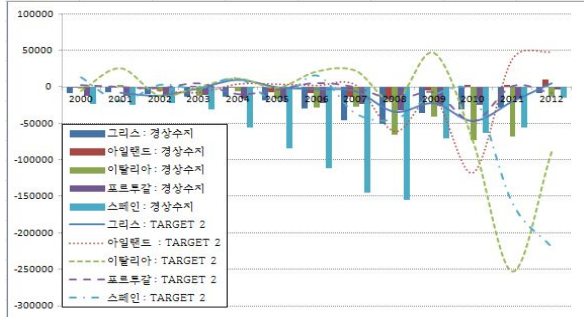
자료: Osnabrueck University.

- 잔액 기준 TARGET2 수지는 2012년 7월 이후 재정위기국 경상수지 적자폭 축소 등의 영향으로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증감액 기준 TARGET2 수지는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개선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음.

4) TARGET2 시스템하의 국가간 지급결제에 따른 시중은행 및 중앙은행간 대차대조표 변동과 관련한 사항은 홍경식(2012), pp. 4-5와 Cecchetti, Stephen G, R. N. McCauley, and P. M. McGuire(2012), pp. 2-5에 자세하게 설명됨.

그림 7. GIIPS 국가의 경상수지 및 TARGET2 증감액(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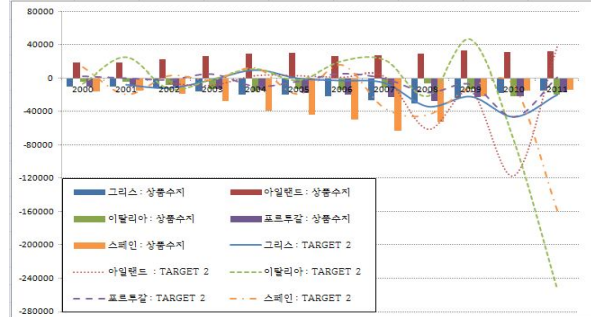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TARGET2는 저장자료(Stock Data)인바, 유량자료(Flow Data)인 경상수지와 비교를 위해 전년대비 증감액 자료를 활용함.
자료: Oxford Economics, Osnabrueck University.

그림 8. GIIPS 국가의 대유로존 상품수지 및 TARGET2 증감액(연간)

(단위: 백만 달러)



주: TARGET2는 저장자료(Stock Data)인바, 유량자료(Flow Data)인 상품수지와 비교를 위해 전년대비 증감액 자료를 활용함.
자료: Oxford Economics, Osnabrueck University.

■ 유로존 국가들의 TARGET2 수지 증감액 추이와 경상/상품수지 추이 사이의 괴리는 유로존 재정위기국과 (독일 등) 중심국 사이의 자본순환 불균형 상황을 반영함.

- 재정위기국의 유로존 역내무역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로존 출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그 비율상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중국 등과의 교역으로 일부 국가는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 1999년부터 2011년까지 GIIPS 국가의 전체 상품교역규모 중 유로존이 차지하는 비중⁵⁾은 평균 44~68% 수준으로 동 기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재정위기 이후에는 오히려 그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있음.
 - ※ 1999~2011년 GIIPS 국가의 대유로존 평균 무역비중: 그리스(46%), 아일랜드(34%), 이탈리아(48%), 포르투갈(68%), 스페인(49%)
- 특히 GIIPS 국가의 유로존 상품교역 중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비교적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GIIPS 국가들의 대유로존 상품교역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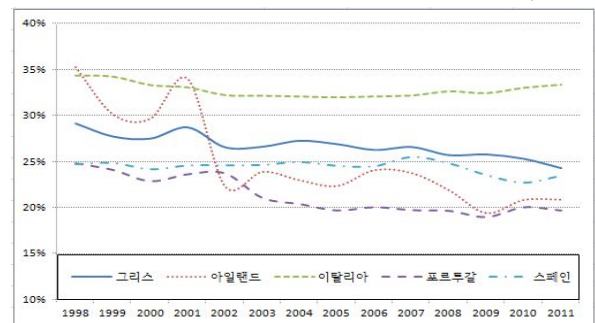
(단위: %)



주: 각 국가의 전체 상품교역 규모를 (수출액+수입액)으로 계산하여 그중 대유로존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그림 10. GIIPS 국가들의 대독일 상품교역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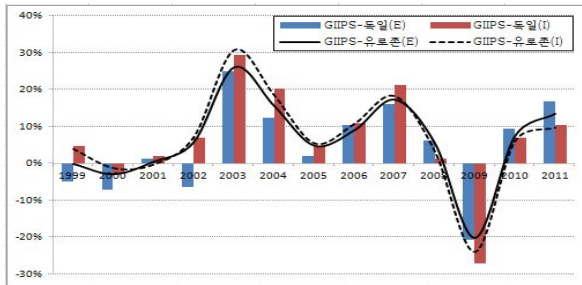
주: 각 국가의 대유로존 상품교역 규모를 (수출액+수입액)으로 계산하여 그중 대독일 상품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5) 상품교역(무역) 규모는 상품수출 규모와 상품수입 규모를 합한 것을 의미함.

- 금융위기 이후 GIIPS 국가의 대유로존/독일 수출입 증가율은 대부분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는바, TARGET2 불균형 확대는 자본계정 적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⁶⁾⁷⁾

그림 11. GIIPS 국가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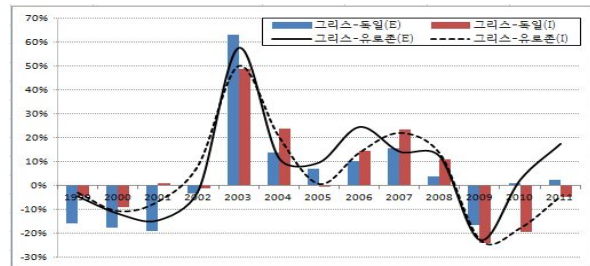
(단위: %)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그림 12. 그리스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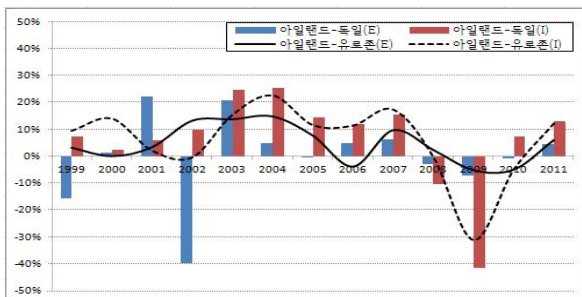
(단위: %)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그림 13. 아일랜드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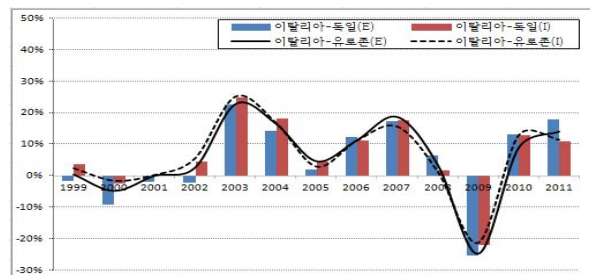
(단위: %)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그림 14. 이탈리아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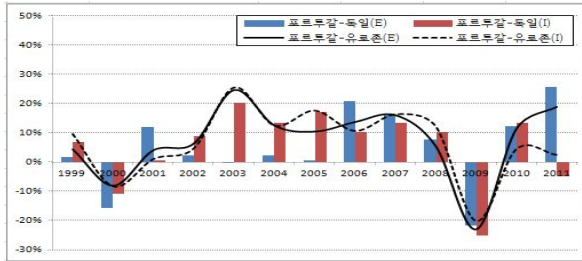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 6) 이와 관련하여 Chen, Ruo, G. M. Milesi-Ferretti, and T. Tressel(2012), "External Imbalances in the Euro Area," IMF Working Paper(12/236)에 따르면, 유로존 출범 이후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는 역내무역이 아닌 역외무역에서 기인한 것으로, 금융위기 이전에는 경상수지 적자분을 독일 등의 역내 국가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보전함으로써 국제수지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국제수지상의 불균형도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함.
- 7) 일반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단일통화를 단일국가가 사용할 경우, 경상수지나 자본수지상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중앙은행 준비자산으로 보전함으로써 국제수지상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외환위기 발생 우려 등으로 적자상황을 오랫동안 지속시키기 어려움. 한편 유로존과 같이 유로화라는 기축통화를 여러 국가에서 사용할 경우, ECB에서 본원통화를 발행함으로써 이론상 국제수지 적자를 무한정 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나(홍경식 2012, p. 8), 실질적으로 자본계정의 적자를 통한 유로존 회원국간 불균형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해당 국가는 물론 유로존 전체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그림 15. 포르투갈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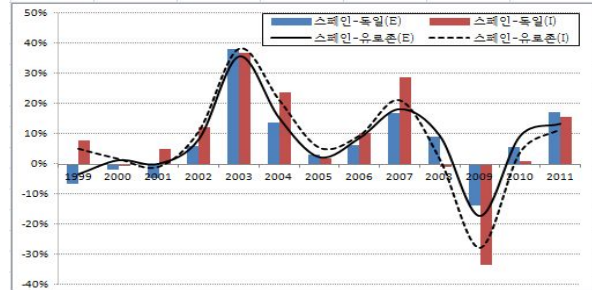
(단위: %)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그림 16. 스페인의 대유로존, 대독일
수출입 증가율(연간)

(단위: %)



주: (E)와 (I)는 각각 독일 및 유로존에 대한 수출액과 수입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IMF Direction of Trade.

- 역내 해외자본유입 및 예금유치등과 같은 자본유입을 통해 경상수지 적자분을 상계했던 GIIPS 국가들이 재정 위기 이후에는 해외로의 자본유출이 유입을 초과하면서 급격한 TARGET2 수지 불균형이 발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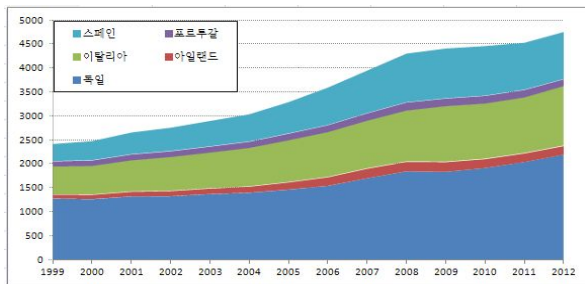
■ TARGET2수지 불균형은 유로존 역내 자본 유동성 불균형으로 확대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과 GIIPS 국가의 화폐유통 및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 GIIPS 국가의 M2 증가율은 2009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대부분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독일의 경우 2009년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 2006년 수준 이상을 회복함.

※ 독일의 M2 증가율 추이(%): 5.3%(2006) → 10.3%(2007) → 8.4%(2008) → -0.6%(2009) → 4.3%(2010) → 6.5%(2011) → 7.3%(2012)

그림 17. 독일 및 GIIPS 국가의 M2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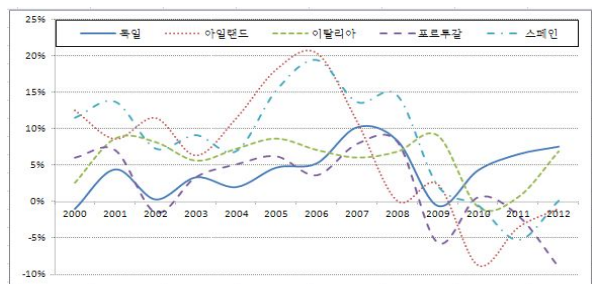
(단위: 십억 유로)



주: 각 기간 말기의 자료임.
자료: Oxford Economics.

그림 18. 독일 및 GIIPS 국가의 M2 증가율(연간)

(단위: %)



자료: Oxford Economics.

- 재정위기국의 GDP 대비 순저축률 비중은 2007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의 경우 마이너스를 기록함.
- 스페인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재정위기국의 순저축 증감액은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까지 순저축액이 플러스를 보였던 이탈리아도 2009년부터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가장 기본적인 유동성 공급의 원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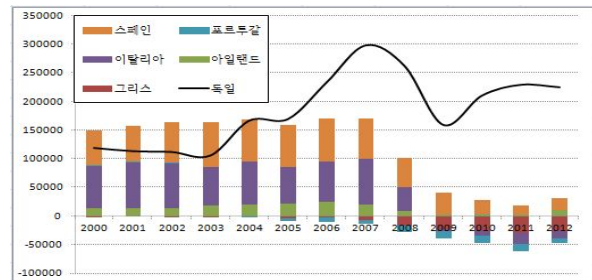
- 반면 독일 순저축률의 경우 M2 증가율과 마찬가지로 2009년 잠시 주춤한 것을 제외하고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유동성 쏠림의 한 단면을 나타냄.

그림 19. 독일 및 GIIIPS 국가의 순저축률 추이(연간)
(단위: %)



주: GDP 대비 순저축 비중임.
자료: Eurostat.

그림 20. 독일 및 GIIIPS 국가의 순저축 증감 추이(연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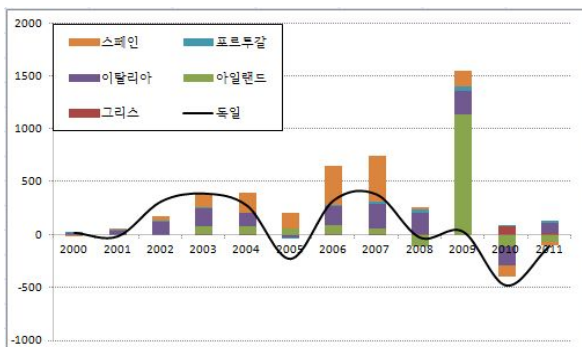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 재정위기국 금융기관들이 부족한 유동성을 채권발행 및 해외금융기관에서의 차입을 통해 보전하려는 시도 역시 여의치 않은 상황임.
- 재정위기국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은 2010년을 제외하면 대부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나, TARGET2 증감액과 경상수지의 격차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역외 금융기관의 디레버리징 등으로 해외은행으로부터의 차입 역시 어려운 상황임.
- 독일은 금융기관의 채권발행이나 역외 금융기관의 대출증감 추이가 재정위기국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TARGET2하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 및 해외자금 차입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 배경이 다르다고 판단됨.

그림 21. 독일 및 GIIIPS 국가 금융기관의 채권발행
증감액 추이(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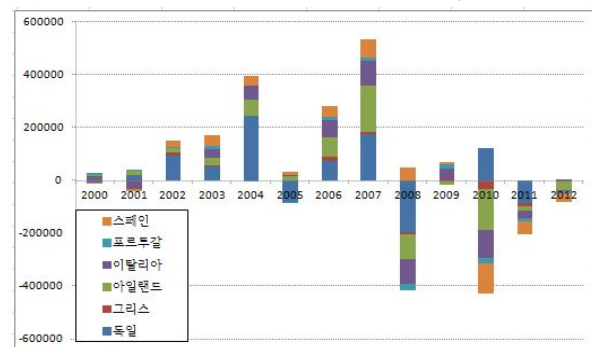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주: 각 국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의 전년대비 증감액 자료임.
자료: BIS.

그림 22. 독일 및 GIIIPS 국가의 해외은행 차입
증감액 추이(연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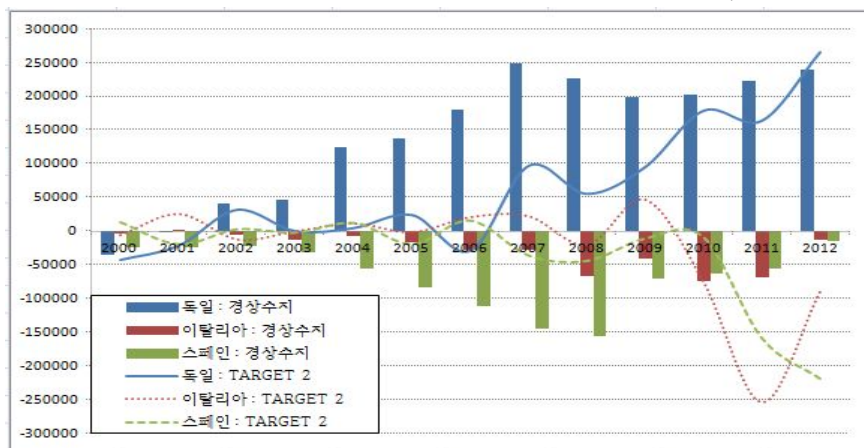
주: 각 국가별 전년대비 만기 1년 미만 해외은행 차입 증감액 자료이며, 2012년 자료는 추정치임.
자료: Oxford Economics.

3. 향후 전망 및 평가

■ 재정위기국의 경상수지 추이를 통해 역내 불균형 상황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GIIPS 국가들은 유로존 출범 이후부터 줄곧 무역수지 적자를 유지해 왔으며 그 폭도 확대된 반면 TARGET2 수지는 균형 상태를 유지해 오다가 2008년 이후부터 급격한 불균형 상태를 나타냄.
-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적자폭이 대폭 감소하였으나 TARGET2 잔액은 2011년까지 오히려 줄곧 상승함.
- 이러한 현상은 금융위기 및 재정위기 이후에 재정위기국의 자본계정 적자폭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23.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의 경상수지 및 TARGET2 증감액 추이(연간)
(단위: 백만 달러)



주: GIIPS국가의 TARGET2 채무잔액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페인 및 이탈리아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함.
자료: Oxford Economics, Osnabrueck University,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IFS).

■ TARGET2 시스템은 유로존 내 자금 흐름을 중개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디폴트 시 전체 시스템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상존함.

- 재정위기국이 지속적인 자본이탈로 결제자금 부족이 발생할 경우 ECB는 채무국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되고, 재정위기국은 이를 다시 채권국에 지급함으로써 이른바 TARGET2 수지 불균형 상태가 확대됨.
- TARGET2 채권은 사실상 발권력이 있는 ECB가 보증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차원에서 지불불능에 대한 우려가 낮을 수 있으나, ECB 운영의 핵심과 TARGET2 최대 채권국이 모두 독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새로운 위기로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IMF는 은행동맹 관련 최근 보고서⁸⁾에서 TARGET2 수지 불균형을 예로 들면서, 회원국간 채권·채무에 대한 지급 및 결제를 어떠한 형태로든 늦추게 되면 향후 더 큰 위험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함.⁹⁾
- 유로존 역내 유동성 불균형이 유지 또는 악화되는 상황에서 재정위기국에 대한 ECB의 유동성 공급이 중단될 경우 유로화의 순환 흐름에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전체 시스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8) R.Goyal et al.(2013), "A Banking Union for the Euro Area," IMF Staff Discussion Note(13/01).

9) 본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유로존 은행동맹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그에 따른 비용이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지적함.

- 유로존 역내 불균형 완화를 위해 재정위기국의 내적절하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노력과 더불어 FTA 등을 통한 역외교역 비중을 현재보다 높이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함.
- GIIPS 국가 중 아일랜드를 제외한 재정위기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은 10~30%로 내수 위주의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는바, 경상수지 개선을 통한 불균형 축소 노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아일랜드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평균 50% 이상으로 수출과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추었으므로 GIIPS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받음.¹⁰⁾
- 다양한 경제권과의 FTA를 통한 무역다변화는 물론 안정적인 자본유입창구 다변화 측면에서도 최근 EU의 적극적인 FTA 확대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¹¹⁾
- 유로존 국가 전반의 경쟁력이 상향 평준화되지 않는 이상, 자본 유동성 차원의 불균형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바, 산업구조 개편 및 무역다변화 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됨. **KIEP**

10) 아일랜드 경제 회복과 관련해서는 강유덕·김준엽(2013), 「아일랜드 경제의 회복방향과 시사점」,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7-0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

11) EU의 FTA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는 강유덕(2013), 「최근 EU의 FTA 정책방향과 전망: 미·EU FTA, 일·EU FTA 추진을 중심으로」, KIEP 지역경제포커스 제07-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참고.